

# 複道 - 사이의 言語 : 천안 두정중학교

## School Corridor as In-between Space : Doo-Jung Middle School in Chunan

이 화 룡\*

Lee, Hwa-Ryong



그림 1. 교문에서 바라본 천안 두정중학교

### 학교개요

- 학교명 : 두정중학교
- 대지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두정동
- 대지면적 : 12,017㎡
- 연면적 : 8,627㎡
- 구 조 : 철골조
- 규 모 : 지하1층 지상5층
- 외장재 : 외벽단열시스템, 폴리메탈 패널, 징크판
- 학급수 : 30학급
- 준공년월일 : 2001. 9. 8
- 설계자 : 건축사사무소 유로(오진식) + 신월건축사사무소(박정원)

건축적 실천은 건축 그 자체의 개념에서 사회적 예술<sup>1)</sup>임을 내재하고 있으며 그 디자인과 구축에 있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회적 기능과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그 중에서 학교건축은 어느 건물 못지 않게 사회·경제적 혹은 정치적 기능과 요구에 부합하도록 강요되어져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의 우위는 일종의 강박관념으로 작용하여 학교건축을 경제 논리에 의해 일률적인 직육면체 형태와 획일적 공간구성의 수용적 시설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학교건축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여건들은 건축예술의 자율성을 자연히 축소 혹은 배제하게 하였다.

하지만 80년대이후 전개되고 있는 학교건축의 새로운 변화는 아이러니컬하게도 건축계의 자율적인 노력이라기보다 교육 내용의 외적변화에 기인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의 의식 있는 교사들에 의해 시작된 열린학습과 90년대에 학교건축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 교육개혁과 교육과정의 혁신은 교육현장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생산위주의 표준설계도와 공리주의적 합리성에 안주하고 있던 학교건축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즉 학교시설을 교육적 요구를 담는 그릇으로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의 교수·학습의 다양한 행태를 공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건축형태 역시 지루한 침묵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 정희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건축사  
1) Neil Leach, Introduction in Rethinking Architecture, Routledge, 1997, p.15.

더 나아가 설계공모제의 확대와 1998년부터 시작된 우수학교시설 시상제도는 건축계가 학교설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학교건축의 공공성과 더불어 예술적 가치 그리고 우리시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산물로서의 의미를 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는 비로소 학교시설도 건축문화 담론의 주요 대상이 되었으며, 경제적 효율성과 교육적 효과의 범주를 넘어서서 자율적인 건축 언어로서 읽혀지고 해석되어지며 디자인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여기서 소개하고자 하는 천안 두정중학교 역시 2001년도 교육인적자원부의 우수학교시설 우수상을 수상한 건축으로서 이러한 노력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다. 본 글은 그 중에서 특히 사이공간, 즉 실과 실, 내부와 외부, 여기와 저기 사이에서의 건축적 발언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물론 이 학교는 지방도시 젊은 무명의 건축가에 의해 설계되어진 작품으로, 건축잡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프리마 도나 건축가의 형태 유희에 대해 화려한 미사어구로 비평 혹은 분석할 대상은 아닐지라도, 진지하게 학교건축을 고민한 흔적을 찾을 수 있었던 몇 안되는 건축작품 중 하나이다. Kostof가 지적한 것처럼 “아무리 초라한 건물일지라도 미학적 관심과 그 호소가 부재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말을 염두에 두면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두정중학교의 모습을 살펴본다. 최근 학교 모습의 변화는 형태적 보편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으로 대변되며, 이는 기본적 기하형태의 변용, 전통요소와 지역성의 고려, 적극적인 색채 사용, 다양한 재료의 선

택 등으로 분석되어진다. 두정중학교 역시 오랫동안 지속된 직육면체에 대한 연모를 버리고 학교 외관과 매스계획에 있어 새로운 도전과 탐구를 시도하고 있다. 수평선과 수직선으로 구성된 단순기하에 사선과 곡선, 유선 등의 기하형식이 외피에 적절히 풀라주(그림 2-4) 되었으며, 매스도 공간 성격 - 시청각실, 특별교실동, 일반교실동 - 에 따라 분절하여, 각각을 육면체, 다면체, 곡면체 등의 기하조작을 통해 개별성을 취하면서도 유기적으로 분화 혹은 집적되게 구성함으로써 납작해져 있던 학교 형태를 풍부하고 자유로운 조형환경으로 바꾸고 있다.

학교 중심부와 교사동은 철골을 노출시켜 철골조 건물의 특성을 충분히 살렸으며, 유리 커튼월 외피 일부에 금속패널을 사용하여 경쾌한 현대적 이미지를 나타내어 신규 택지개발지역에 새로운 컨텍스트를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각 분절된 매스마다 통일된 패턴 및 입면 요소의 반복 사용으로 안정감 있는 입면을 구성하였으며, 지역주민을 위한 시청각실 정면의 원형 아트월과 중앙광장에 면한 곡선처리된 연결복도 등은 철골조 건물의 직선적인 요소들과 적절히 조화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정문, 게시관, 각 매스별 출입구, 옥상정원, 음수대 등 차치 놓치기 쉬운 주변부 설계까지 성실하게 한 점은 설계자의 학교시설에 대한 애정을 느낄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두정중학교에서의 강렬한 인상은 외피와 형태조작보다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에서의 거주성과 그 사이공간에 대한 건축적 고려에 있다. 최근의 우리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율성과 창의



그림 2. 특별교실동의 정면 디테일



그림 3. 일반교실과 특별교실 연결복도



그림 4. 특별교실동의 측면 디테일

성에 대한 강조이며 이는 수준별 학습과 교과선택권 등에서 볼 수 있는 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인식일 것이다. 이는 60년대이후 계속해서 제기되었으나 전혀 개선되지 못했던 초·중등학교의 교실당 학생수를 완화하려는 노력이나, open space, 다목적 교실 그리고 동아리 활동실 등의 확보 노력은 학생들이 적절한 규모와 쾌적한 환경에서 다양한 학습 및 생활 활동을 보장받을 권리에 대한 최소한의 물리적 반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즉 학교시설은 되도록 많은 학생들을 수용하여 교수와 수업이 이루어지게 하는 목적적 공간이 아니라, 교사와 학생들이 생활하고 거주하는 공간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한다. ○○교육청의 구호인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기억되는 학교”는 이러한 거주하고 생활하는 학교를 지향함을 표현하는 직접화법이라 하겠다.

이러한 생활공간으로서의 학교는 규정되고 주어지는 공간들의 구성으로 이루어 질 수 없으며, 학생과 교사들이 수동적 주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아가 형성, 발전되고 개인적인 여러 행위가 발생하는 환경으로 조성되어야 한다. 학교가 푸코나 아리에스가 말하는 규율과 훈육 혹은 통제를 위한 공간으로부터 벗어나 학생과 교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의 변화는 학교가 제2의 가정으로 교육용 주거 장소가 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이때 학교는 생활에서 부딪히는 건축적 장면 혹은 터에서의 총체적 경험의 또 그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건축문화의 대상이 되며, 교실은 교수·수업이 이루어지는 목적공간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 이벤트가 발생하는 방(room)이 된다. 그리고 이들 방과 방이 이어지고 이들의 연결선과 연결점과 면으로서의 복도와 홀은 전통주거건축에

서 찾을 수 있는 뒷마루, 대청마루와 마당과 같은 장소적 성격으로 변하게 된다.

다음은 두정중학교의 사이공간을 통해서 어떻게 이러한 장소성과 거주(dwelling)의 개념이 실현되어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물론 학교건축의 거주성 논의는 학급당 학습 학생수, 냉·난방시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그리고 교구, 건축재료 및 시공의 질적 수준 등 좀더 구체적인 다른 많은 건축적 요소들과 함께 고려되어야 하나, 본 글에서는 통로공간 - 사이의 언어라는 주제에 한정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건축의 주요 사이공간인 통로는 벽과 벽 사이, 실과 실 사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 등 다양한 사이를 분리하면서 연결하는 접속사로서의 언어이다. 학교의 교실은 큰 주택의 하나의 방과 같이 독립되어 있으면서, 다양한 통로와 만나는 면(面)들을 통해 학교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로 여겨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이공간의 건축적 연출 방식이다. 이러한 사이공간은 학생들이 주체로서의 한 개인, 그리고 그 개인들로 이루어진 사회라는 공동체와의 조화를 공간적인 체험에 의해 경험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반 공적 장소가 된다.

과거 대부분 학교의 통로는 교실과 교실, 체육장 혹은 교무실을 연결하는 복도와 계단이 전부였으며, 이는 “건축은 동선이다”라는 르 꼬르뷔제의 선언처럼 구체화된 공간을 이어주는 동선물이용 연결선에 불과하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계단과 복도이외에도 브리지, 피로티(그림 5), 엘리베이터 등의 다양한 수직·수평 이동 공간이 생겼으며, 이의 결점(node)에는 홀, 오픈 스페이스, 사



그림 5. 연결복도 하부의 피로티



그림 6. 정보자료실이 있는 오픈스페이스



그림 7. 옥상정원



그림 8. 연결복도 4층



그림 9. 특별교실동 1층 데크



그림 10. 남면초등학교 중앙복도

몰함공간, 옥상정원, 마당 등이 등장하고 있다. 이는 선(線)적 공간으로만 취급되던 통로가 학생들의 대화, 휴게, 전시, 학습 등의 면(面)적 공간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기하학적 선으로 인식되던 통로에 호돌로지 공간(hodological space) 개념의 도입을 의미한다. 호돌로지 공간은 두 지점 사이를 연결하는 수학적 공간과는 구별되며, 인간이 여기를 떠나 저기를 향해 움직이는 동안 부딪히는 위상적(topological), 물리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상황들과 관계하는 실제적 경험에 반응하는 통로공간을 말한다.

이처럼 학교건축 논의에서 주변으로 취급받았던 통로공간이 프로그래밍의 주요 테마로 떠오른 실질적인 원인은 초등학교의 경우 열린학습을 위해 학습공간의 복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였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이동수업, 교과선택학습 등에 따라 동선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양과 빈도가 증가함으로써 사물함공간이나 학생휴게스페이스 등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로공간을 단순한 프로그램 문제로 즉물적(sachlich)으로 공간의 확장이나 실의 증설로만 취급한다면, 이들은 넓어진 복도 혹은 이유 없이 비어둔 잉여공간으로만 여겨질 우려가 있다(이 경우 시설 사용 후 예외없이 벽을 막아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짐을 경험하였다). 따라서 통로공간은 호돌로지적 인식의 변화와 함께, 학생들의 궤적에 따라 이어지는 통로로서가 아니라 생활하고 그 가운데 교육적, 물리

적, 심리적 체험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설계되어야 한다.

두정중학교의 내부 통로공간은 움직임의 모입 부분에 홀을 두고 그 주변에 다목적실, 라운지, 정보 검색실(그림 6), 조망 데크를 접목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에 옥상정원(그림 7)으로 배치하여 내부 동선을 마무리짓고 있다. 통로 공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속성 - 움직임, 정지, 휴지 등 - 을 공간적으로 적절히 수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3개단위의 교실 사이에 알코브 형식의 다목적실을 두어 수업의 학습활동, 소그룹 학습, 토론 및 휴게 장소를 두었고, 통로의 결점부분에 개인용 컴퓨터를 설치하여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모여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두었다. 이들의 연장은 조망 데크나 옥상정원으로 자연과 외부로 확장되어 학교 통로 공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지나가는 단편적 현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이벤트가 있고 스토리로 발전하여 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오랫동안 추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이처럼 통로공간은 규정된 언어라기 보다는 비어두고 행위와 이벤트를 기다리는 독백적 제스처어에 가깝다. 따라서 두정중학교의 통로 공간은 목적을 부여한 이름을 가진 공간이 아니라 사용자가 사용함으로써 스스로 규정되는 다목적 공간이거나 빈 공간이 된다. 그 예는 특별교실동 북측 출입구의 전면 데크(그림 9)나 다양한 옥외공간(파고라, 뒷마당, 수공간, 야외공연장 등)에서 읽힌다. 특히 북측 출입구의 목재 데크는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만남과 놀이가 이루어지게 하고 근접한 뒷마당과 내부를 연결하는 대청마루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자한 건축가의 의도가 읽혀진다. 하

1) 호돌로지 공간은 길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hodos에서 유래하며, 운동이 가능한 공간의 의미를 가지며, 짧은 거리, 안전성, 최소한의 노력 그리고 최대의 경험 등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지만 이 데크가 북측 그늘진 곳에 있고 또 학생들의 동선보다는 관리동선에 가깝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그리고 호돌로지 개념의 통로는 유크리트 기하학에서처럼 거리가 가장 짧은 직선이 아니라 사람들의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자연스럽게 흐르는 곡선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러한 건축적 연출은 특별교실군과 일반교실동을 연결하는 연결복도(그림 8)에서 나타난다. 이 연결복도는 1층부분을 피로티로 처리하고 2층에서 4층까지를 투명한 유리면을 두어, 두 건물동의 불투명한 매스 사이를 보다 경쾌하게 만드는 조형성이 우선하였겠지만, 또한 성격이 다른 두 영역 사이를 만곡된 형태로 조작하여 학생들이 중력감 없이 외부 자연과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공간적으로 또 시각적으로 조작하고 있다. 아마 학생들이 연결복도를 지나면서 마실가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면 이는 성공한 건축적 무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간혹 고단한 일상에서 축제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나가는 논두렁길처럼...

내부통로에 대한 이러한 가로(street) 개념의 도입은, 상부 천창으로부터 빛을 떨어뜨려 통로가 지나야 할 물리적·심리적 환경을 충족시키고 있는 특별교실동의 중복도 부분에서도 나타난다. 이러한 사례는 충남 태안에 위치한 남면초/서남중학교의 중앙복도(그림 10)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채택되어지고 있다. 이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관리시설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앙부의 모임지붕 천창에서 빛이 1층과 2층 복도로 채광되어 형태적으로 분리된 건물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다. 교실들과 건물동들 사이에 자연 빛이 드는 가로를 배치하여 공간을 보다 풍부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고 있으며, 중간 부분에 휴지공간을 두어 길어진 동선을 완화시키며 이 가로를 외부공간으로 시각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또한 이러한 내부통로는 내부공간과 외부공간 사이를 연결하면서 외부통로로 전이된다. 외부통로는 도시와 학교 사이의 연결하는 매개적 역할을 담당하며, 이를 위해 두정중학교에서는 수목을 가진 가로광장과 수공간을 가진 중앙광장을 통해 내

부와 점진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그림 11). 그리고 외부동선이 모이는 부분에는 의도된 피로티, 우묵한 주진입부 그리고 뒷마당과 연결하는 데크 등의 안이면서 밝은 공간들을 두어 사이의 언어들을 보다 풍부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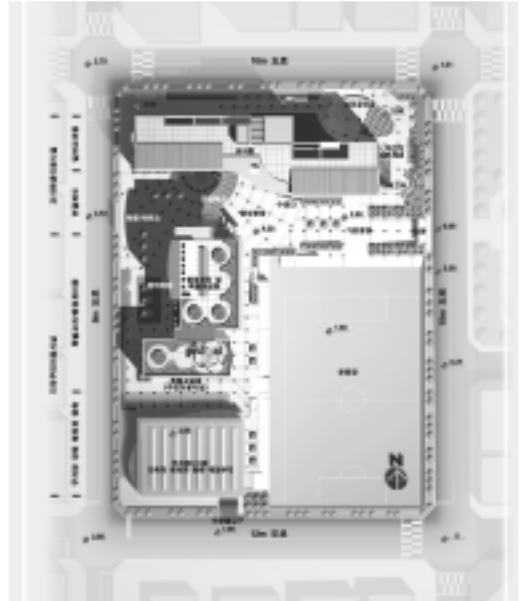


그림 11. 두정중학교 배치도

본 글은 두정중학교를 통하여 학교건축이 수용과 수업을 위한 목적적 공간에서 학습과 체험을 위한 일상적 생활공간으로 전이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이공간에서 읽혀지는 다양한 언어들을 면(面)적공간, 제스처로서의 건축언어, 호돌로지 개념, 가로의 개념 등과 함께 논의하면서, 대상이 부재된 추상적 기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과 체험이 일어나는 통로공간을 추적하였다. 물론 이 과정에서 설계자의 의도를 왜곡하거나 다소 과장되게 읽어 나간 부분들이 있으리라 본다. 따라서 본 글은 건축작품을 분석한 비평이 기보다는 학교건축에서 고려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는 선언적 담론으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